

“큰 구원”

제 1 영도교회 박정덕 목사

(M. Div.)

◇ 성경 : 히브리서 2:1.~4. ◇

I. 서론

히브 리서 저자는 “큰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오늘 교회에 나오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며 감사와 기쁨이 있고 교회봉사를 못하는가?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구원문제를 생각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아야 된다.

첫째는, 누가 구원하셨는가(구원자).

둘째는, 누구를 구원하셨는가(구원받을 자).

셋째는, 왜 구원하셨는가(구원의 이유).

넷째는, 무엇으로 구원하셨는가(구원의 자료).

다섯째는, 어떻게 구원하셨는가(구원의 방법).

여섯째는, 구원이 무엇인가(구원의 정의).

일곱째는, 어디서 구원하셨는가(구원하신 곳).

위에 열거된 문제 하나만 자체히 생각해도 하나의 방대한 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일곱번째 어디서 구원하셨는가의 문제에서 죄에서 구원하신 것외에 여섯가지에서 (종합 일곱가지에서 구원했다) 구원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안다. 이것은 우리를 죄악세상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의 모형과 상징이 된다.

출애굽의 여러가지 상징은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첫째,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다.

둘째, 바로는 마귀의 상징이다.

셋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은 죄에 종되었던 선민의 상징이다.

다섯째, 10 가지 재앙은 심판의 상징이다.

여섯째, 유월절 양은십자가의 상징이다.

일곱째, 홍해는 중생의 상징이다.

여덟째, 광야는 교회의 상징이다.

아홉째, 불과 구름기둥은 성령님의 상징이다.

열째, 만나와 생수는 말씀의 상징이다.

열한째, 요단강은 축음의 상징이다.

열둘째,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다.

저자는 위에 있는 사실들을 전부 성경으로 증거하고 입증을 할 수 있다(여기에 대한 간단한 책자도 냈다). 이 모든 상징 가운데 애굽은 세상임에 대하여 제한된 지면에 설명을 해 보겠다.

II. 본론

1. 성경에 애굽은 세상을 가르쳤다고 했다.

계시록 11:8.에 “저희 시체가 큰 성질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이상한 말이 있다.

충성된 중인들이 순교를 당한 곳이 소돔과 애굽이라 하고 이어서 그 소돔과 애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힌 곳이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유대나라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소돔과 애굽에서 죽었단 말인가? 참으로 이상한 말이기도 하나, 그러나 그 뜻은 예수님을 죽인 곳이 죄많은 세상이란 말이다. 땅위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을 죄많은 세상인 소돔과 애굽이 죽였다는 말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세상을 상징하는 국가와 도시가 있다.

1) 죄악으로 무너진 바벨탑(바벨론). 계 17:15.~16. 18:1.~3.

2) 죄악으로 유황불의 심판으로 망한 소돔과 고모라. 창 19:1.~28.

3)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애굽이다.

2. 애굽이 세상을 가르킨 이유가 무엇인가?

1) 죄악이 관영한 나라였다.

레위기 17:17.에 보면 애굽사람들은 수염소를 섭기는 죄를 위시하여 각종 죄악으로 땅까지 더러워졌다. 롬 18:24. 레노프(Renoff)라는 애굽연구의 대가가 애굽의 우상목록을 만들기 위하여 애굽의 우상을 조사하다가 너무나 많은 우상을 발견하였다. 소에서 논두렁에 기는 족제비까지 애굽사람이 신으로 섭기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우상목록 만드는 일을 포기하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은 신이다”라고 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내용도 그들이 신으로 섭기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섭겨야 할 선민을 거기에서 나오게 하셨다.

2)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없는 나라이다.

(1) 선민이 괴롭과 고통을 당했다.

출 1:8.~14. 애굽과 바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선민을 괴롭게 했다. 우리는 성경역사와 일반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같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 사실을 많이 보게 된다. 하 11:33. 행 14:22. 딤후 3:12.

(2)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와야 할 곳이다.

사 19:3. 롬 6:2. 사 30:1.~5. 31:1. 렘 42:14.~16. 43:2. 신 17:16. 계 14:4.5.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선민은 나왔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애굽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장면과 광경을 많이 보게 된다. 노아를 세상에서 성별시키고, 아브라함을 칼데아우르에서 부르시고, 룻을 소돔에서 불러내시고 오늘 우리들도 애굽같은 죄악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이다.

(3)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면 여러가지 손해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다.

창 12:10.~20.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흥년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이삭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어가지 않음으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창 26:1.~6.).

솔로몬은 애굽사람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왕상 11:1.~8.에 보면 솔로몬 나라가 분국(分國)이 되는 비극의 쓴 잔을 맛보게 된 원

인이 세가지였다.

① 이방자 특히 애굽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다.
왕상 11:1.

② 이방의 우상들을 잡신들을 섭겼기 때문이다.

왕상 11:2.~8. 솔로몬이 이방의 신들을 섭기게 된 것도 애굽여자를 위시한 이방여자때문이다. 이 이방여자들이 솔로몬을 유혹하여 우상을 섭기게 하였다.

③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왕상 11:9.~13.

3. 애굽같은 세상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1) 세상에서 나오라.

세상과 인연을 끊어라고 하였다. 롬 18:3.30.20.20:23. 엡 2:2. 고후 6:17.18. 시 1:1. 이것은 성도의 성결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교회라고 할 때 애굽같은 세상에서 절라져, 분리되어 나온 무리들을 가르킨다.

2) 세상으로 도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다.

민 14:3. 벨후2:22. 사 31:1. 렘 42:19.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다시 돌아갈려는 무리들이 있었다. 세상에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쟇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3)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했다.

요일 2:15.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한 것은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무조건 사랑치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

(1)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치 말라는 뜻이다.

마 10:37. 하나님보다 부모나 처자나 그 무엇이던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고 했다.

(2)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신령한 것보다 먼저 사랑치 말라는 뜻이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도 우선과 차선이 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다른 것은 그다음에 해야 된다. 예수님

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라고 했다.

(3) 세상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다(골 3:2.).

4)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다.

롬 12:2. 이 말도 잘못 이해하면 많은 오해가 생기기 쉽다. 본받지 말라고 했다고해서 세상사람이 양복입는 것 본받지 않기위하여 한복 입고 세상사람 전깃불 켜는 것 본받지 않기위해서 호통불이나 램프 불 켜고 세상사람이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 본받지 않기위해서 걸어 다니거나 짐승타고 다니고 세상사람 양육집에 사는 것 본받지 않기위해서 토굴이나 초막에 살라는 뜻이 아니다. 사실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살려는 그런 교파가 없는 것도 아니다. 미국에 애미쉬(amish) 교파 같은데서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다.

그러나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일치(一致)되지 말라 또는 동화(同化)되지 말라는 뜻이다. 요셉이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을 본받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애굽화되지 아니했다. 애굽과 일치되거나 동화되지 아니하였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았지만 바벨론화 되지않아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화하지 말아야 된다.

5) 세상과 친하지(가까이) 말라고 했다.

약 4:4. 그러나 절대로 염세주의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염세주의나 현실도피를 가르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반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마 5:13.~16.), 세상에 데려가시기위해 기도하시지 아니했고(요 17:11.), 바울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쳤다(고전 5:9.~11.). 칼빈이 죄 많은 제네바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다.

6)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다.

딤전 6:17. 이 세상은 불안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소망을 둘 수도, 두어서도 안될 곳이다.

7) 세상에 영주할 곳 없으니 영주할 생각을 말라했다.

히 12:27. 13:14. 베전 1:24. 25. 요일 2:15.~17. 고전 7:31. 이 세상은 천재지변, 화재사고, 흉년, 전쟁 등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애굽같은 세상에 어떻게 영주할 곳을 찾을 수 있는가. 오히려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로 영원한 하늘본향을 항상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바라 보아야 되겠다.

III. 결 론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대로 주신 것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애굽같은 장방성 세상을 떠나게 하시고 교회라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말씀의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후 젖과 끓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에서 살게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비록 애굽같은 세상에 살고있지만 세상을 사랑치도 말고 본받지도 말고 친하지도 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골 3:1.).